화살

1959년10월하반호(112)

홍 종호 그림

결의 실천을 위하여

리 영춘 그림

구실은 그럴듯 하나

국가 건설 위원회에서는 철재와 목재, 세멘트를 절약할 데 대한 당적 파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성 중앙 설계 연구소에 지도를 내려 갔다.

그리하여 평천리에 건설 중에 있는 까벨 공장을 비롯하여 경간이 큰 반층 산업 건물 설계들의 지붕 구조를 보고 이런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 18메터, 24메터 경간에서는 트라스로 해도 넉근할텐데 공연히 이런 육중한 철근 콩크리트 보를 써서 많은 철재와 세멘트를 랑비하는구만요》

그러나 설계 연구소 기사장은 잘 접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설득시켰다.

트라스로 설계를 고치면 매개 보에서 종전보다 50%나 적게 써 21톤의 철재를 절약할 수 있고, 세멘트도 70% 이상이나 적게 쓰게 되여 30여톤을 절약할 수 있었다.

헌데도 그들은 시공에 착수하지 않은 곳만 설계를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 두었다.

왜 그 부분은 고치지 않았는가? 이 사유는 아주 흥미 있다.

《어떻게 되여 그렇게 철재가 랑비되게 설계 됐습니까?》

하고 물은즉 표준 설계실장은

《하, 그건 벌써 몇년 전에 설계한 거였지요, 그 때에는 그런 철근 콩크리트 보를 썼다고 지적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다행히도 시공되지 않았으면 재검토해서 설계를 고치지 않고 왜 그 전 그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많이 시공이 돼서 다시 헐고 새 설계에 의해서 건설하기 곤난합니다》

《건설 위원회에서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제기한 것은 5월이였는데 그 때에도 설계를 고쳐서 건설하기가 곤난했는가요?》

건설 위원회 설계국에서 구조 부문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런 질문에 아무런 리유도 붙이지 못했지만 지금 묻는 사람은 이런 기술 부문에는 그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표준 설계실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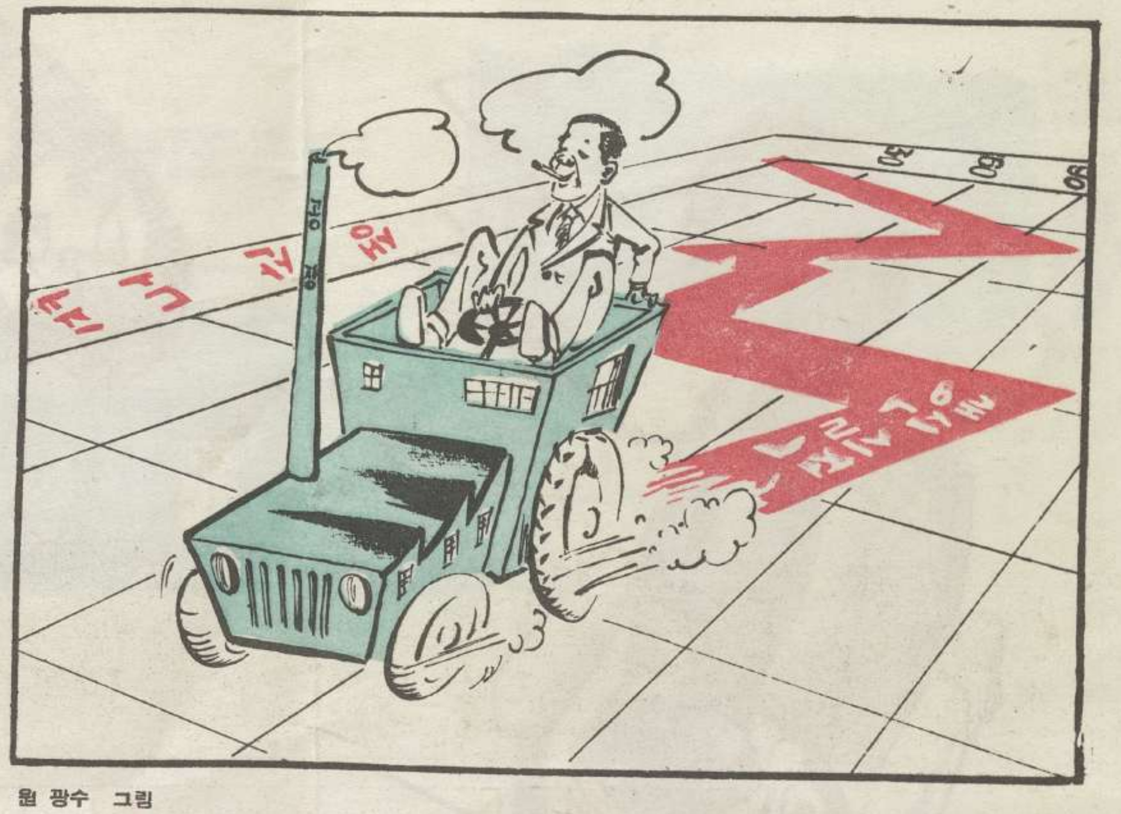
《그 때에도 이미 기초를 다 축성하고 기둥 위치도 다 정하고…》

하면서 힘든 기술적인 술어를 내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도리여 건설 위원회에서 때늦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듯이 불만스런 어조로 말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기초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나와서 그런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우리는 기계 공업성 설계 연구소 일'군들이 이런 저런 구실을 버리고 철재 절약에서 선수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파동성의 원인은?



원 광수 그림

《…차를 운전하는 데서도 좌로 기울어질 때에는 우로 틀리고 우로 기울어질 때에는 좌로 틀리고 지나치게 빨리 나갈 때에는 속도를 좀 늦추고 더디게 나갈 때에는 속도를 높이고 이와 같이 제때에 조절하고 조정하여야 차가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김 일성)

규격재를 생산하지 않아서

한 녀성 금속 기사 동무가 커다란 산업 건물 건설장에서 친구를 만나 물었다

《아니, 왜 여기서는 이렇게 철재를 랑비하고 있어요? 아주 딴 세상 같군요》

《글쎄 이런 라선형 철근을 쓰지 말구 이형(異形) 철근을 쓰면 부착력이 높아 갈구리가 필요 없게 되니 많은 철을 절약할 수 있고 〈강철 5〉나 〈25ГС〉 같은 것을 쓰면 이런 〈강철 3〉을 쓸 때보다 30% 가까이나 절약할 수 있는 데도 못하지, 또 12,000kg/cm² 이상의 강도 높은 철선이 있으면 철을 퍽 적게 들일 수 있구, 예비 응력 철근 콩크리트를 만들 철근을 공급해서 그런 콩크리트를 만들어 쓰면 보통 철근 콩크리트에서 철재를 기껏 절약한 것보다 20%~70%의 철을 절약할 수 있는 데 못하고 있거든》

《지금 국가적으로 철재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는 모양이군요》

《정말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좀 정신이 버쩍 들게 신문에다 낼까? 어떻소? 동의하우?》

《동의하다 뿐이겠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요. 그래 누가 해결 안해 줘요?》

《상부에 제기는 했는가요?》

《제기야 얼마나 했다구!》

《그럼 동무네 책임자를 비판해야겠어요. 아직 정신을 못차리구…당장…》

녀성 금속 기사 동무는 만년필을 꺼내여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 이름은 금속 공업성 흑색 금속 관리국 일'군들이라고 쓰시우!》

《뭐 거기서요?!》

《그렇지요, 바로 동무의 그 친애하는 그 동무가 있는 데서지요, 금년 5월에 기업소 기사장들이 모여서 그런 규격재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서도 기업소들에는 계획 과제를 톤수로 달성하는 데만 몰두하노라고 이런 규격재 생산은 공정이 어쩌고, 기술적 조건이 어쩌고, 로라 깎기가 힘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안하고 있는 데도 가만 내버려 두고 있지요! 거기 사람들은 산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례를 들어 철을 절반으로 절약해 쓰게끔 규격재를 만들면 실지로는 2배의 철을 생산한 것과 같다는 것도 모르구 톤수 달성하는 데만 몰두하니… 이런 사람들은 응당 비판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아까 철재를 랑비하게 하는 사람을 신문에 내는 데 쌍수로 환영했지요? 그럼 이제 동무 남편에 대한 펠레톤을 씁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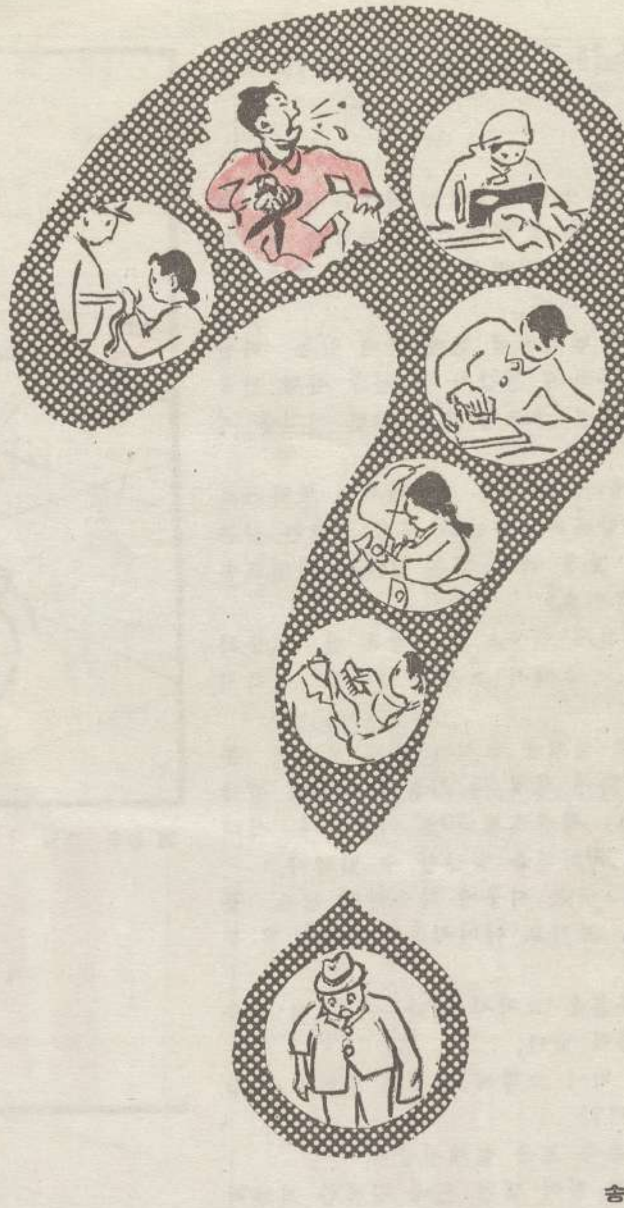
리 운봉

듣지 않는 관료주의

최 영근 그림

아직도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이 지속되고 있다

일은 손이 맞아야 하는데



송 용남 그림

아직도 일부 로동자들 속에서는 규률과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전체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목이 메인 갱도

운산 광산 사곡갱에서는 버럭과 광석이 제 1사갱 부랏트로 모여 온다. 권양기로서 광석과 버럭을 9번 갱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갱외로 운반해야 한다. 그런데 제 1사갱 권양기 능력으로서는 채광량에 운반 능력이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갱장 동무는 지배인에게 제의했다.

《권양기에 인차를 두개씩 달면 훨씬 능률이 오르고 목이 티일 것 같습니다》

《버럭으로 목이 메이는거야 동무들이 로력 조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않소.
착암을 중지하고 모두 버럭을 담아 내오》

지배인 동지의 지시대로 뚫지 않고 쌓인 버력만 운반하니까 자리가 훼하니 났다.

《보오, 자리가 나지 않소. 결국은 사상 문제요, 사상 문제…》

그후 이틀을 뚫고 실어 내고 했으나 이틀 전과 같이 버력은 마구리마다 찼다. 그러니 이틀이 멀다하고 착암을 중지하고 버력만 실어 낼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새 교대가 들어 오면 버력부터 치우고 자리를 내야만 착암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 갱 밖에서부터 갱내 작업장까지 들어오고 나오는 시간이 거의 1시간씩 걸리고 버력을 치고 착암 준비에 또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천공 시간은 300분도 보장 못하고 있다. 누구든지 로동자 동무들에게 물어 보시라.

《동무는 왜 생산 실적을 더 올리지 못하느냐…》고

그 동무는 주저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버력만 뽑아 달라, 우리는 얼마든지 생산을 올릴테니…》

문제가 이렇게 조직 사업에 걸려 있는 데 이 광산 지도 일'군들은 문제가 제기 된지 3, 4개월 후인 9월 말에 가서야 인차를 두개 달고 운반 문제를 림시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지도 일'군들이 월초에 행정 기술 협의회를 거쳐서 생산 계획을 하달만 하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 조직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갱도와 마구리는 목이 메일 지경으로 버력이 차 있건만 채광장에는 충진 로력이 돌려지지 않은 까닭에 버력으로 충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4~5m의 공간을 두고 채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갱안에서 한편에서는 목이 메이고 한편에서는 배를 곯고 버력을 기다리고 있다.

《로력 조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지배인 동지는 천만 부당하다는 듯이

《그건 갱에서 해야됩니다》라고 하신다.

이 갱 사업이 광산 전체 사업으로 되고 있는 단일갱인 조건하에서 로력 조직 사업이 다만 갱에서만 할 일 같지 않은 것은 로파심에서일까?

김 상애

신의주 림산 제재 공장에서는 생산 문화를 제고할 데 대하여 아주 무관심하다. 특히 수리 직장은 야장과 선반이 같이 놓이고 내부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먼지 투성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신의주 식료 공장에서는 식용유 원료인 옥수수 배아 15톤을 비롯하여 막대한 량의 식료 가공 원료를 불철저한 보관 관리로 부패 변질시키고 있다.

천마 광산에서는 귀중한 철재 5차량을 6월에 신의주역에 하차시켜 놓고 3, 4개월씩이나 로천에 방치하여 녹쓸게 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물'고기의 충고

리 용남 그림

물'고기—여보, 내가 이 물'속을 왜 떠나지 않는지 아오? 당신도 로동자들 속에서 살아야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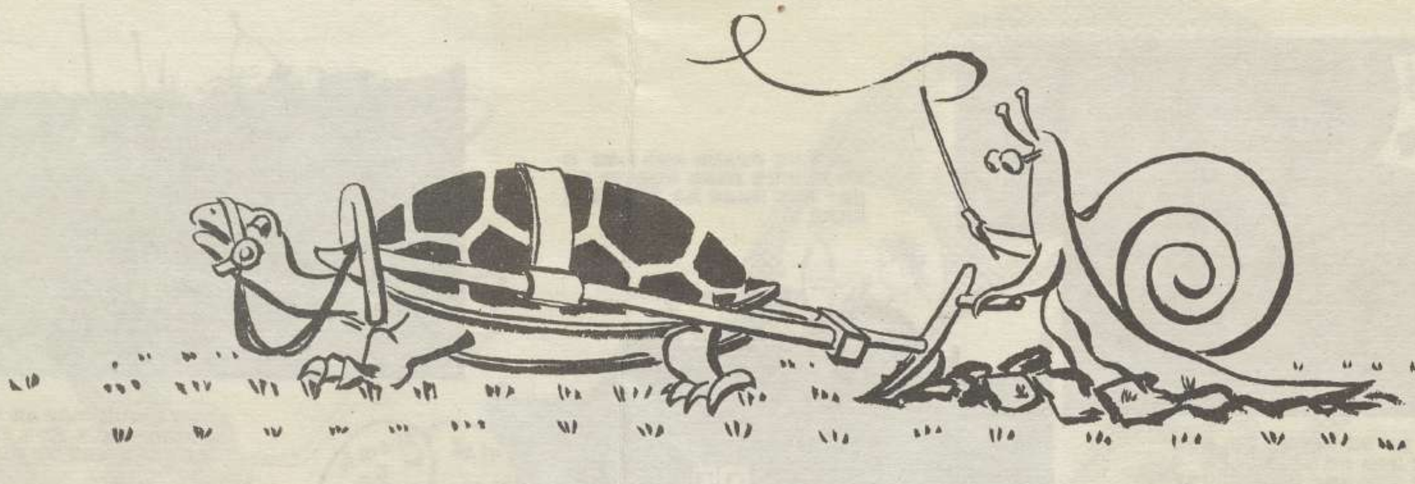
탈곡을 거칠게 하는 곳에서는 —?………

어미쥐—얘들아, 우리는 한 알의 벼알이라도 허실하지 말자

허 능택 그림

평북도 정성군을 비롯하여 일부 군들에서는
추경이 아주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가는지? 섰는지?



최 영근 그림

결산 분배 때가 가까워 왔다

일부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제때에 로력일 계산장을 비롯한 내부 사업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홍 종호 그림

돼지의 신소

허 능택 그림

돼지—내 집은 언제 지어 주겠소?

관리 위원장—?………

《거북이 마을》의 가을 풍경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북》의 마을은 신안주에서 얼마 멀지 않은 청천강 기슭에 옹기 종기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북이 마을의 이름은 이 고장 사람들의 《행복》과 《만년 무강》과 관련되는 이름도 아니며 이 마을 벌판에서 서리를 맞으면서 랭정하게 서 있는 랭상모판 출신들의 용기를 상징하는 이름도 아니다. 운하리가 《거북》의 마을로 된 것은 금년 춘기 파종 때부터였다.

이렇게 《거북의 마을》의 력사는 짧으나 그가 미친 해독은 자못 크다.

이 마을 간부들은 거북이 타기에만 몰두하다 나니 당면한 영농 깜빠니야에는 낯을 돌릴 사이가 없은 것만은 사실이 였다.

얼마전에 축산반에서 . 피해를 입은 것도 거북의 바람이였으며, 맥류 파종이 눈'속을 헤치고 동기 파종 훈련에 넘어가게 된 사정도 역시 《거북》의 바람이였다.

관리 위원장 백 히문 동무나 생산 부위원장 조 창수 동무들이 씰로쓰와 가을밀파종 사업을 말아 먹고도 당면한 추수, 탈곡, 사업들을 어느 것도 중심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일년 내내 관리 위원장의 혼자 생각이 반영된 월중 계획을 짜서는 서류통에 박아 두었고, 생산 지도원이 만든 로력 발란스 계획은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거북이통에 파묻어 두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얼어 붙은 계획으로 변질되여 버렸다. 그들은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거북》이를 타고 뱅뱅 돌다나니 세월은 흘러 1년도 인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에 그들은 군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도 받았다. 그리하여 로력 발란스 계획도 재검토되고 력량 배치를 《과학적》 타산에 의해 세웠다.

안주 농기계 임경소와 송배전부에서는 추수 탈곡과 엄청나게 떨어진 밀파종 등에 요구되는 긴급 기자재들까지 보장하여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로력 발란스 계획도 선진적 기계화 부대들도 거북을 든든히 탄 이 사람들 앞에서는 맥을 쓰지 못하였다.

10월 하순도 지나고 서리를 맞이한 어느 날이였다. 마혼 여섯 골짝에서 추위에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나는 랭상모판 출신들의 대 항의에 관리 위원회 일'군들은 끝끝내 봉착하고야 말았다.

그날 밤으로 송죽 부락에서는 튼튼히 자란 한 랭상모판 출신의 발기에 의하여 그들의 련합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관리 위원회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첫째 《금년도 우리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비상한 노력에 의하여 재식 밀도가 작년보다 배 이상이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10월 중순 전으로 추수와 탈곡에 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성숙시키고 있으니 며칠간은 로력을 모조리 동원하여 우리들을 추위에서 구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돌려 줄 것을 호소한다》 둘째 《작년에 우리 조상들은 서리를 맞는 바람에 막대한 수량이 탈곡장과 조합 창고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벌판과 길'가에서 희생된 쓰라린 교훈을 거울로 하여 금년에는 전체 달구지, 동력 탈곡기, 북데기 탈곡기, 선풍기, 비짜루, 도리깨 동무들도 한결 같이 손을 맞추어 우리와 함께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

세째 《우리들에 대한 건사는 한 해의 영농 사업을 최종적으로 총결 짓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통때와 같이 조합원들의 체력을 기준하여 대인적으로 일정한 점수를 계산하는 폐단이라든가 작업에서 량에만 치중하고 질을 경솔히 취급하는 현상이 없도록 로력일 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추수와 탈곡 작업을 다그칠 것을 호소한다》 요지 이러한 랭상모판 출신들의 련합회의 호소문이 관리 위원회에 전해지자 그제서야 얼어 붙은 로력 발란스 계획을 녹여 보려는 그들의 관심이 추수와 탈곡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벌판에서 목이 까부라진 랭상모판 출신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땅은 조합원들의 로력과 창발성을 고스란이 들어 냈건만 갈팡 질팡 하는 관리 위원장과 지도 일'군들의 무지와 주먹치기는 아무 것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

서 득창

명태의 화풀이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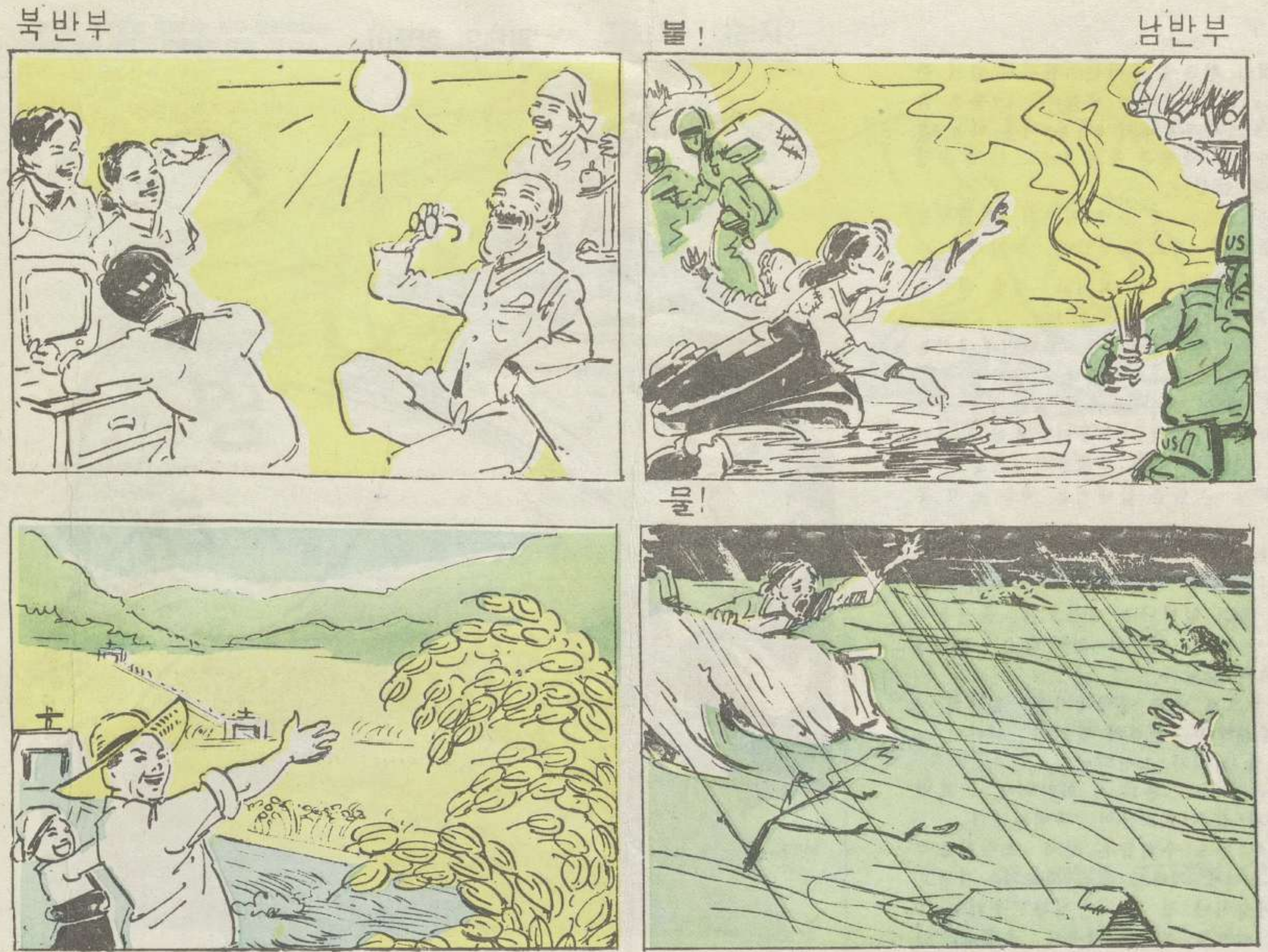
—요까짓 시설로 누굴 맞아 들이겠소

일부 수산 사업소에서는 명태잡이에 대치하여 하륙 작업, 할복 시설, 명란통, 덕대 등 명태 가공 준비 사업을 불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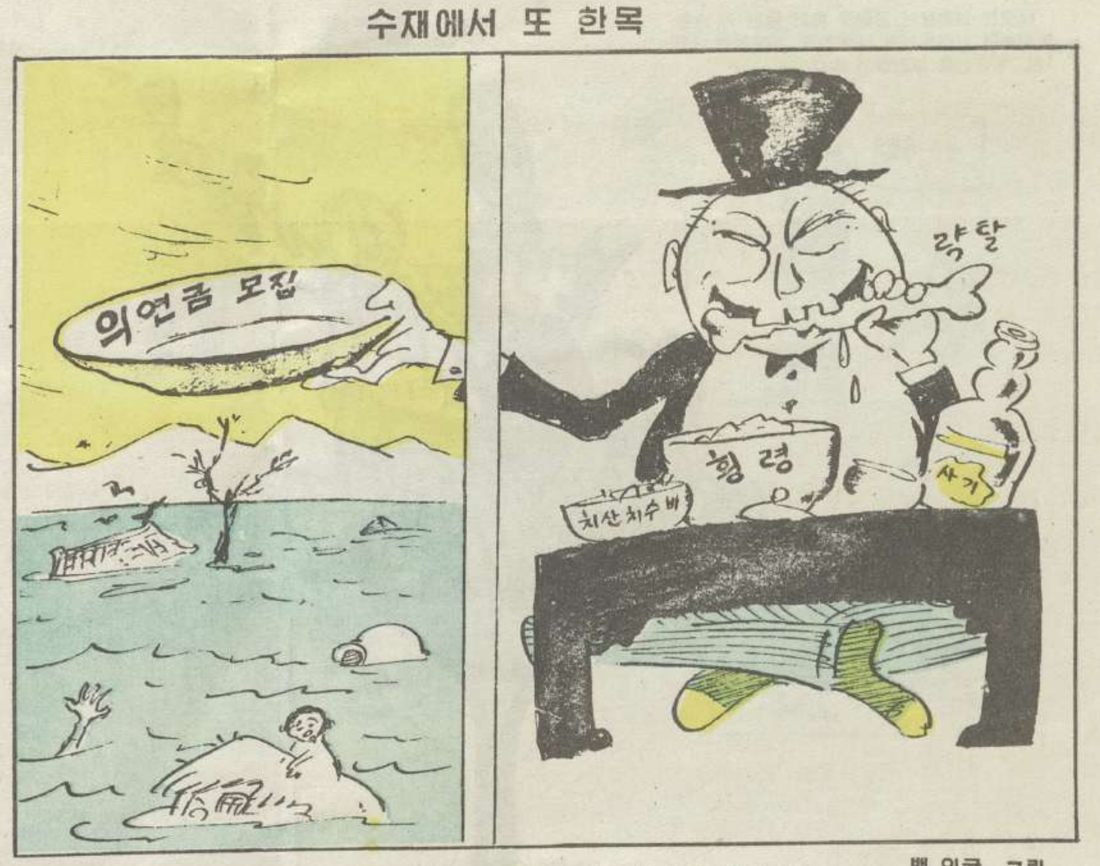
채소 없는 농산물 상점

—배추와 무우는 없나요?
—잠간만, 이제 인수해 오겠어요

광량만 제염소 차 영환 그림



허 성필 그림



리 승만—전국민의 거족적인 의연금을 바란다

백 인균 그림

《의연금》

오 홍택

부산 기관구 기관 조사 박 성길은 몇푼 안되는 월급이라도 타 볼 념으로 회계과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아침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이 달도 돈 탈 것이 한푼도 없어요》

도장을 내민 박 성길을 보고 회계원이 하는 말이다.

《뭐요? 이 달에는 어느 귀신이 떼여 먹었소?》

박 성길은 화가 난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고통부 지시로 월급의 1할은 수해 리재민을 위한 의연금으로 공제하고요…》

회계원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의연금을 받아두 렴치가 있지, 이번 수해로 처자와 집을 몽땅 잃어 버린 사람에게서 의연금을 뗀단 말이오. 도대체 누구를 구한다는 거요?》

《저허구 그럼 어떻거나요, 저두 집을 잃었는데 의연금인지 략탈금인지 제했어요, 상부 지시라니까요》

《그리구 또 뭘 제했소?》

박 성길은 다그쳐 물었다.

《교통부 장관과 국회 의원들이 놀을 때의 접대비, 기관구장 자제분의 결혼식 부조, 공제회비…》

《됐어 됐어, 달마다 제하는 열두가지는 그만 두고 이 달에 특별히 제한게 뭐유?》

박 성길은 회계원의 말을 가로 막으면서 다그쳐 물었다.

《나머지 몇푼 남은 건 구제 물자 교제 비로 거둬 갔어요》

《뭐, 구제 물자 교제비?》

《이번 수해로 리재민은 100만이나 났는데 구제 물자라는 건 쥐꼬리만 해서 머리 교섭을 잘 해야 구멍이 뚫어진 바지라도 한 벌 얻어 입는대요》

《그래서》

《그래서 대한 로 총 지부장이 와서 교제비가 필요하다구 몇푼 안되는 월급들을 몽땅 거둬 갔어요》

《그럼 우린 당장 뭘 먹어야 하오》

《저하구 말하면 뭘 합니까, 저두 저녁 끼니가 없어요》

× ×

서울역 매표구에는 차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허줄한 옷 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매표구에 돈을 들여 밀었다.

《경주 가는 표 한장 주소》

《돈이 모자라요》

출찰원은 돈을 도로 내 밀었다.

《차'값이 또 올랐슈?》

할아버지는 당황한 어조로 물었다.

《수재민 의연금으로 1할씩 차표에 덧붙여 받으라는 상부 지시요》

《의연금이 뭐요, 이번 통에 아들 집이 몽땅 떠내려 갔소, 의연금 모은게 있으면 좀 보태 주구려》

《우린들 어떻겁니까? 차표 수입의 1할을 의연금으로 상부에 바쳐야 하는 데요》

매표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가 났다.

《상부구 뭐구 의연금도 받을 만한 사람께서 받아야지 아들 자식 식솔이 몽땅 물에 떠내려 가서 열흘이나 걸려 겨우 로자를 마련한 사람보구 의연금 내라니 무슨 돈이 있겠소》

《우리두 딱합니다》

《당신들이 딱하면 아들 식솔 죽인 사람은 의연금을 못 낸다구 고향땅에두 못가 본단 말이요?》

할아버지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상부 지신데 어떻겁니까》

《도대체 그 의연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요?》

《그걸 우리가 압니까, 리재민을 구한답니다.》

《구하긴 뭘 구해? 우리 고향 사람들은 굶어 아우성 친다는 데》

《허 참 로인님두, 우리 보구 그럼 뭘 합니까》

출찰원도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 ×

서울 종로의 료리집—명월관,

《향란이 간죠다 (계산하자는 뜻)》

《국회 의원》들과 장관들을 상대로 진탕 놀아 대는 모 회사 사장이란 작자가 기생 보고 하는 말이다.

《10만 환인데 1할의 의연금을 붙여 11만 환이예요》

《애, 10만환 받아라, 도꾸이 (고객이라는 뜻)보구 그런 걸 받는 법이 있냐, 그리구 장관들과 국회 의원 어른들의 놀음판에서 그런 돈을 받는단 말이냐》

《아이유, 사장님두, 수재민들이 굶어 죽는다구 아우성 치는 데 사장 같은 어른이 만환쯤 더 쓴들 뭐 자리가 나겠어요》

《애, 돈 만환이 문제냐, 기분 문제지. 엉, 술'값에 그런 걸 붙이면 재수가 없다》

《사장님답지 못하게 그러시유?》

《뭐 인색하단 말이지, 너희들 화대는 여기 3만환 더 놓는다. 나보군 의연금 소릴 하지 말라. 술맛이 없어진다. 굶어 죽는 놈이 있어야 돈 귀한 줄 아는 법이야 엉》

날 강 도

남조선 농민들은 금년도 풍수해로 말미암아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소위 《미곡 담보 융자》 방법으로 례년보다도 더 많은 추곡을 략탈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물'결은 커진다

—난 모르겠다, 서로 도와라

—이래도 모르겠느냐!

백 인균 그림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는 리 승만 피뢰들은 서울에서만 하루'밤에 유흥비로 1억 1천 150만환을 탕진하고 있다.

유흥 종족들

최 영근 그림

《서울 신문》에 의하면 한강 기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모리배들은 피뢰 서울 시청의 비호 밑에 빨래'세, 휴식세라는 세금까지 강제로 받아 먹고 있다.

자리' 세

허 능탁 그림

—옳지, 3천환 벌었다

—글을 쓰는 걸 보니 시인 같군

—아이코, 3천환 놓쳤구나

군 사 비

류 계환

〈한국 은행〉 현금 출납계 책상 우에는 100환짜리, 500환짜리, 1000환짜리 지폐 뭉치들이 쌓여 있다.

녀 사무원들이 그것을 액면별로 100매씩 계산해서 묶어 놓고 또 그것을 벽돌장처럼 충충 쌓아 올린다.

그들은 즉 지폐 뭉치들은 얼핏 보기에는 엇비슷한 외모들이지만 여기에 모이기까지의 그들의 래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액면이 작고 해진 것들은 8도 각지에서 세무 관리들이 거두어 드린 것이고 액면이 크고 팔락 팔락한 것들은 얼마 전에 조폐창에서 새로 찍어낸 것들이다.

녀 사무원들이 돈을 계산하고 있는 데 한편 구석에서는 지폐 뭉치들이 사담들을 하고 있다.

—자네는 어데서 왔나?

팔락 팔락한 1000환 짜리가 너덜너덜하게 해진 100환 짜리 뭉치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말인가, 부산서 왔네, 내가 여기까지 오게된 경로를 좀 말해 볼까!

부산서 나의 마지막 소유자는 어떤 농민이였네, 어느날 집달리가 와서 나를 그 농민의 손에서 빼냈단 말야, 상환곡을 안냈다나? 그래서 그 농민이 재판에 걸렸거든, 상환곡을 안낸 데다 반항까지 했다고 농민은 징역을 가고 그의 아들이 땅과 가장집물을 모두 팔아서 벌금을 바쳤거든! 그런데 여보게, 참 그집 아들이 말이 아니드군, 부산서 여기로 오는 길에 영도 다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집 아들을 만났는데, 글쎄 그 젊은이가 자기 모친과 동생들을 데리고 영도 다리 밑에서 살고 있지 않겠나,

—그거참 안됐군, 그러나 그런 처지가 어디 그농민 뿐이라고, 모두들 털리는 판인데…

—누가 아니래, 참 기막힌 일이 너무 많으니…

이번에는 또 다른 지폐 뭉치가 말 참견을 한다.

—우리는 경상도 대구에서 왔는데 말야, 관리들이 세금을 어찌나 살살이 긁어 들이는지 대구시의 직물업자들의 80%가 파산을 당했거든, 살아 나갈 수가 없어 자살한 직물업자가 대구에서도 한 두명이 아니니 더 말할게 있나.

그런데 당국에서는 우리를 어디다 쓸려구 그러는 걸가? 여기 올라 올때 월성군 안강을 거쳐 왔는 데 지난 번 수해에 안강은 온 부락이 물에 잠겼었단 말야, 리재민들을 구제할래도 많은 자금이 필요할텐 데 도당국에서는 재해 복구를 위해 푼돈 한닢 지출하지 않고 우리를 모두 이리로 올려 보냈거든…

그때 다른 행원이 방수포로 만든 배낭들을 들고 와서 지폐 뭉치들을 그 안에 쓸어 담았다. 지폐들로 채워진 배낭이 10 여개나 책상 우에 늘어섰다. 누가 그들을 정문 밖으로 운반해 냈다. 그들 뒤에는 무장을 갖춘 헌병이 따랐다.

—여보게,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가나?

—낸들 어떻게 알겠나, 가봐야 알지

그들은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월리스〉에 실렸다. 자동차는 한 두번 붕붕 거리드니 움지기기 시작했다. 차는 역전 광장을 거쳐 먼지를 날리면서 론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먹장 같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 있다. 스산한 날씨다. 길'가의 무너진 건물의 벽체에는 딱정벌레가 날아다니고 있다. 거리 량쪽으로는 수 많은 군중들이 물'결처럼 너울거리면서 밀려 가고 밀려 오고 하는데, 그들의 몸에는 람루가 걸쳐 있고 얼굴은 창백하다.

꿰여진 배낭 구멍 사이로 그들을 내다보며 돈들은 탄식을 하고 있다.

—얼굴과 차림 차림으로 보니 실업자들과 리재민들이 분명하군…

—모두 먹지 못해 잘 걷지도 못하는 데 우리가 한장씩만 저 사람들 손에 있어도 당장 요기는 할 수 있을게 아니겠소?

모두들 딱해 하는데 자동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어느 상점 앞에 다달았다.

그때 갑자기 그 상점 안에서 한 중년 부인이 맨발로 거리에 뛰쳐 나왔다.

—이놈들아! 나를 아주 잡아 먹어라!

부인은 자포 자기와 절망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길'가에 풀석 주저 앉았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부인은 극도의 불경기로 가게를 닫게 되여 정신 이상이 든 상인이였다.

자동차는 어느 안'과 병원 앞으로 지났다. 거기서는 한 청년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겠으니 자기 눈알이라도 다른 안'과 환자의 이식용으로 사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로동자, 농민은 굶주리며 죽어 가고 중소 기업주가 신음하고 상인들이 비명을 올리고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올리고 있다.

이 모든 부르짖음 속을 뚫고 자동차는 괴뢰 정부 〈국방부〉 청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 갔다.

마치 남조선의 돈은 오직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서만이 세상에 태여 났다는 듯이…

리 찬우 그림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자기 조상들이 인디안을 습격하든 본을 따서 금년 6월에 파주 군내 부락을 집단적으로 습격하여 강도 행위를 감행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오늘 날까지 도처에서 야수적 학살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그 수'법 그대로

원 광수 그림

대리 군인

신 흥순

호각 소리 개 짖는 소리—

방망이를 든 순경들은 모자 끈까지 졸라 매고 강제 징병에 응하지 않는 청년들을 찾아 개떼처럼 돌아치고 있다.

《난 서장님만 믿습니다》

《념려 마쇼》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서장은 지전 뭉치를 접어 넣으면서 일어 섰다.

《사실 리주사로 말하면 군내 유지로서 우리 경찰서를 위해 그간 많은 기부금도 내셨고 또 나에게도 늘상 성의를 베프시느니 만치 나두 또한 어려운 청을 들어 드려야지 안 그렇소? 허…》 웃으며 자리를 떴다.

리가는 문밖까지 서장을 배웅하고 나서 《히히, 돈이면 귀신두 부린다더니 안되는 일 없구나!》 하며 주먹으로 손 바닥을 탁 치며 좋아한다.

《여보, 그래 어떻게 됐소?》

리가의 안해는 조급한 어조로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제대루 척척 들어 맞었지》

《그래 우리 창선인 군대루 안나가게 됐나요?》

《아, 돈까지 먹구 끌어 갈가?》

《아이구 말 마우, 지금 경찰서마다 인원수가 할당이 돼서 그 충수 채우느라구 웬만큼 먹여선 다 헛 거 랍니다》

《그러기에…》

리가는 휘휘 둘러 보고는 안해의 귀'전에 다 대고 가만히 얘기한다.

《우리 창선이 대신 머슴애를 보내기루 했소》

《네? 영식이요? 아니 그 앤 인제 겨우 열다섯 살 밖엔 안되는 데?》

《괜찮아, 지금 군대에서 큰 놈 작은 놈을 가린답디까? 원참! 영식이란 놈은 키가 엄부렁하기 때메 지금 스므살이래두 곧이 들을 거요. 서장이 다 이리왈 저리왈 해 주겠다니까》

이날 저녁 영식이는 징병에 끌려 갔다.

《네 이름이 뭐야?》

《김 영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지금…》

《임마! 김 영식이가 뭐야? 네 이름은 리 창선이란 말이야, 리 창선!》

《아닙니다, 리 창선이는 저의 쥔 집 아들 이름이구요, 저는 그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김 영식이 올시다.》

《임마! 여기 호적 등본이 있는 데도 그래두 거짓말이야? 인제부턴 〈리 창선〉허구 부르거던〈네〉허구 대답허란 말이야, 알았어?》

《아닙니다, 전…》

《그래두? 이 자식이?》 하더니 사정 없이 따귀를 갈긴다.

《어디 대답해 봐! 리 창선—》

《……》

《왜 대답이 없어? 리 창선!》

당장 요정을 낼 것처럼 쏘아 보는 바람에 영식이는 기운 없이 《네》 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영식이는 자기 이름을 잃어 버리고 리 창선이란 쥔집 아들 대신 론산 훈련소로 끌려 가게 되였다.

가는 도중 영식이는 같이 끌려 가던 신입 대원들과 함께 인솔 해 가지고 가는 장교놈들을 때려 눕히고 도망을 쳤다.

이런 사건이 있은지 이틀 후에 리가의 집에는 《국군》 장교 두 놈이 찾아 와서 다짜고짜로 도주한 리 창선을 내여 놓으라고 야단이다.

《장교님, 사실은 도망 친 놈이 저의 아들이 아니고 저의 집 머슴놈입니다.》

리가는 굽실대며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해 보았다.

《임마! 네가 호주구 네 아들놈이 창선이구 호적에 뚜렷이 있는 데두 아냐? 네 아들놈이 선참 장교를 까부시구 내 빼는 바람에 몽땅 도망을 쳤다! 임마》

하더니 구두'발로 리가의 정갱이를 되알지게 거더차 거꾸러 뜨려 놓고는 둘이 달라 붙어 한참 두들겨 팼다.

리가는 땅에 쓰러진채 〈아이쿠!〉 소리만 연방 지르다가 나종엔 찍 소리도 못하고 파김치가 되여 늘어져 버렸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줄도 모르고 그의 아들 창선이가 뛰여 들어 왔다.

《넌 누구야?》

《이집 아들입니다》

《이집 아들? 옳지! 이름이 뭐야?》

《리 창선이예요》

《리 창선? 으흥! 이런 뻔뻔스런 자식 같으니!》

우선 왼쪽 바른쪽 철꺽철꺽 넵다 갈기더니 《이 자식아! 딴놈들은 다 어디루 도망쳤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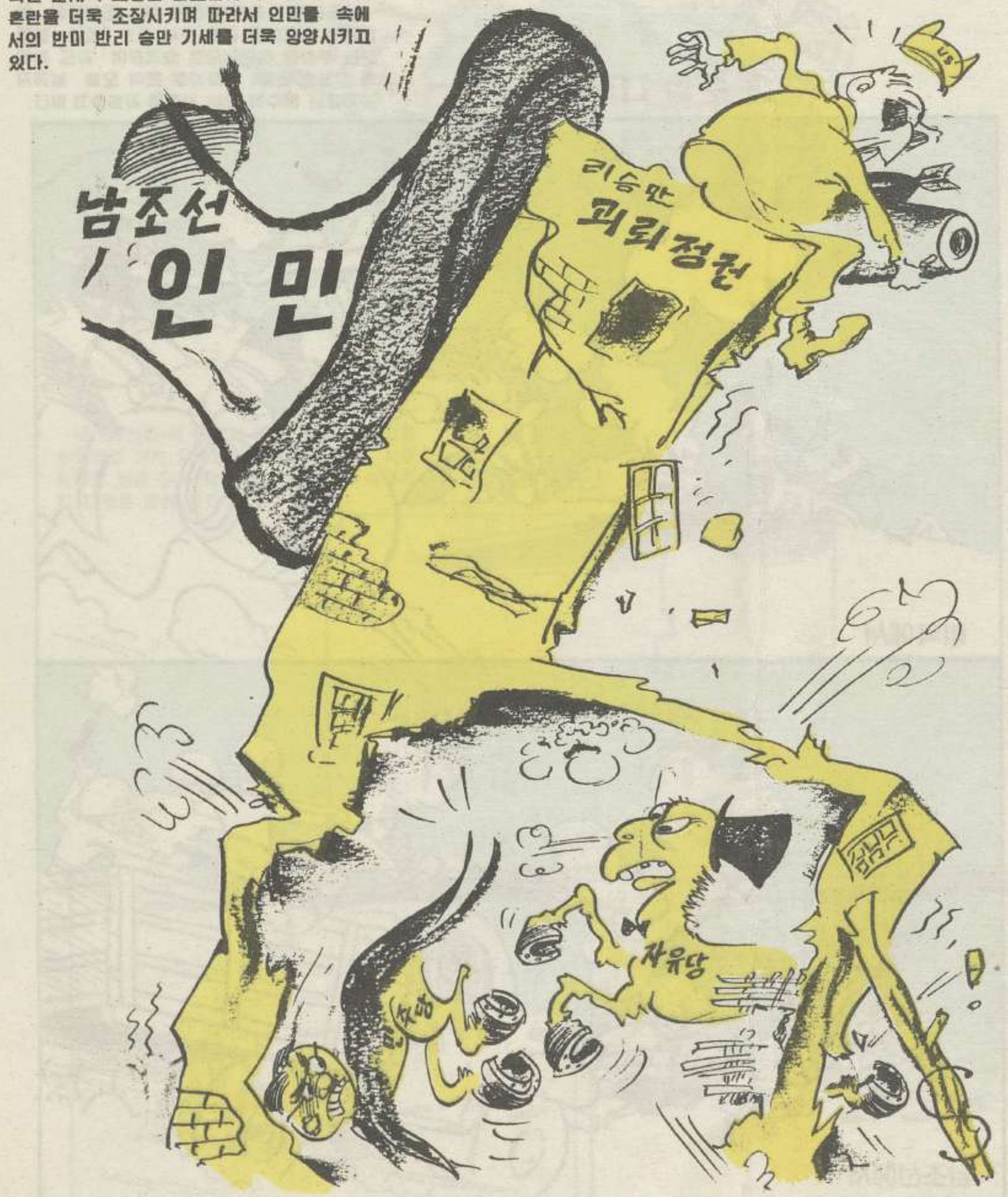
《아이구, 전 모릅니다》

《모르긴 뭐가 몰라? 요 앙큼한 자식 같으니, 장교를 죽이구두 무사헐 줄 아니? 가자, 임마!》

장교들은 그를 엮어 가지고 군부로 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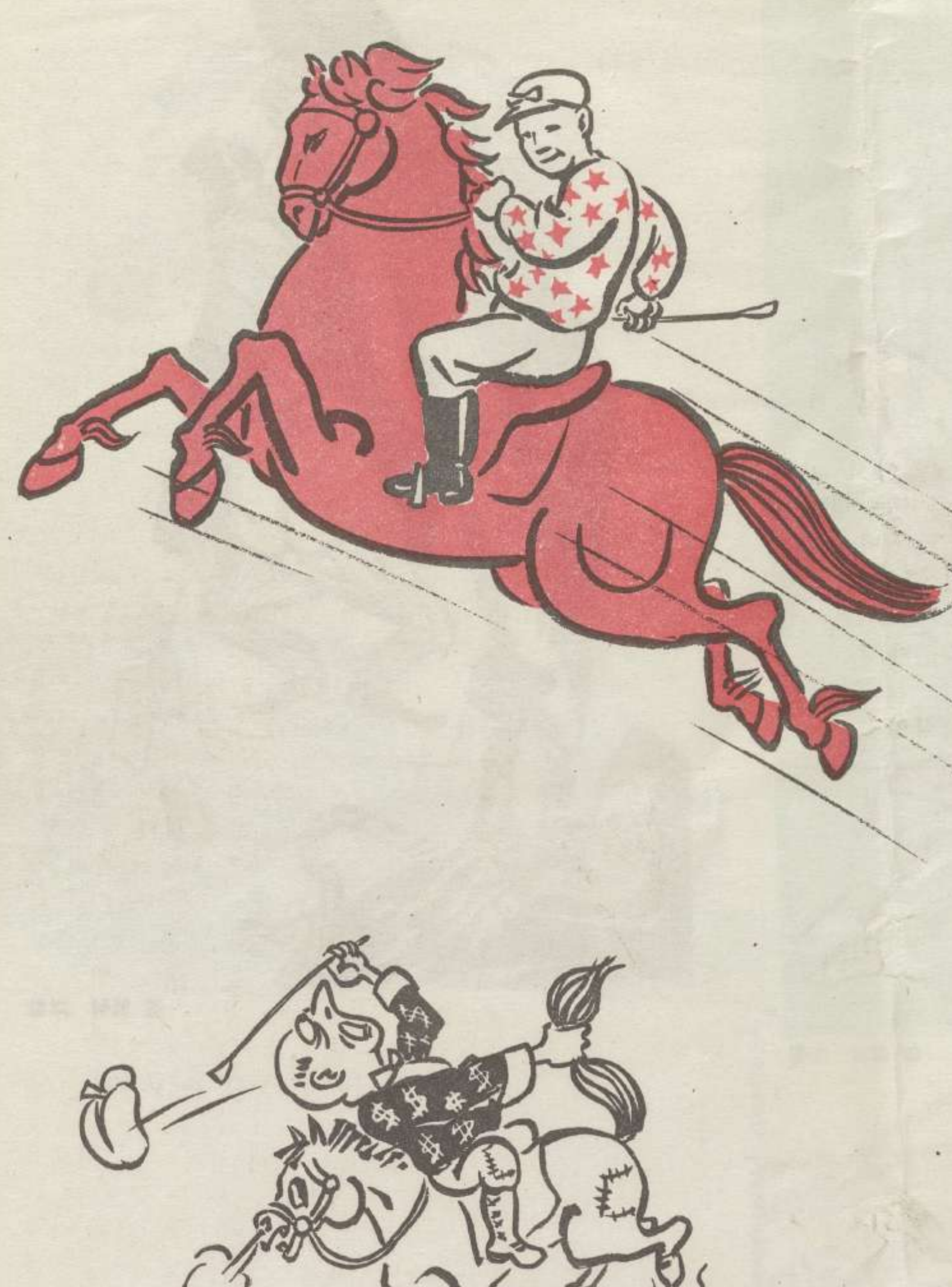
몽땅 흔들린다

명년에 있을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 승만 괴뢰 지배층 내부에서는 추악한 개싸움이 심화되여 가며 한편 미제 침략자들의 련속적인 군사적 소동은 남조선에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을 더욱 조장시키며 따라서 인민들 속에서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를 더욱 앙양시키고 있다.



백 인균 그림

승패는 결정되였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준마를 타고 달리는 데 당신들은 늙은 자본주의의 말을 타고 가는 것이다. 그늙은 말이 지금은 당신들을 태우고 있으나 이미 지쳐버린 그말은 절룩거리고 있으며 비틀거리고 있음으로 그말에 앉은 사람은 주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떨어지고 말 것이다》 (엔. 에쓰. 흐루쑈브)

최 영근 그림

《악수는 유죄라》

로 철

《악수는 유죄라》—즉 서로 손을 맞잡고 정답게 흔든다는 것은 범죄로 된다는 뜻이니 바로 손을 내밀어 남의 것을 훔친다면가 까닭 없이 사람을 살상하면 범죄로 된다는 말은 나라마다의 형법에도 밝혀져 있는지라 들어서 인차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만은 도무지 리해할 수 없는 일이며 또 리해될 리도 만무한 일이다.

그러나 별별 화괴 망칙한 노릇이 조석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저 미국땅에서는 이만쯤 그리 신기한 말이 못되는 모양이여서 때는 지난 9월 28일 아이오와주 소재지 데모인시의 재판소에서 있은 일만 하더라도 바로 그러하였더라.

때가 되여 재판정은 주 검사 멘스필드의 준렬한 기소장 랑독으로 넘어 갔는데 그 기소장에 가라사되

《피고 "존 디르모인 워크스" 농기계 공장 로동자 크로씰, 디켄스 및 "디르 앤드 컴파니" 회사 로동자 아우구스멘, 캐나벨트 4명은 9월 22일 대통령 각하의 명백한 암시(주 1)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거역하여, "환영한다" "우리는 당신니끼따 흐루쑈브를 환영한다"라는 〈불온〉한 프랑카트를 들고 당국의 승인도 없이 가두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중인 련방 경찰(주2)들의 단호한 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력으로 거역하여 마침내는 공산주의자들의 대표 엔. 에쓰. 흐루쑈브와 악수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명백히 맥카디, 타프트— 하트리 및 스미스법에 위반됨으로 이에 기소함》이라고 하였더라.

이는 명백히 엔. 에쓰. 흐루쑈브 쏘련 내각 수상의 미국 방문이 미국의 보통 사람들 속에 미친 그 거대하고도 심각한 영향력을 없애 버리려고 날뛰는 완고한 《랭전》정책자들의 서투른 음모며 책동임에 틀림 없는 일이지만 《악수는 유죄》라고《론죄》를 할적에 검사 각하의 얼굴도 정색이요, 높은 자리에 쭉 늘어 앉은 재판관 나으리들의 얼굴도 역시 모두 정색이였으니 어찌 미국이 아니고서야 이런 희한한 광경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인가.

허나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는 미국의 보통 인민들 속에서도 날로 드높아 가고 있으니 바로 그날 재판정에서〈피고〉들인 데모인시 로동자 네명이 발표한 공동 성명 역시 그러하였다.

그 공동 성명에는 써여 있으되

《재판장 선생, 무릇 엔. 에쓰. 흐루쑈브 수상은 아이젠하워씨가 정식으로 초청한 귀빈이니 그를 환영한 것은 워싱톤의 뜻과 완전히 합치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악수는 유죄라〉는 〈죄명〉에 대하여 말한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소위 〈공산주의자들의 대표〉 즉 우리들이 존경하여 마지 않는 쏘련 내각 수상과 제일 먼저 악수한 미국 공민은 바로 아이젠하워, 닉슨 및 기타 고급 인사 제씨들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임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앉은 이 피고석에 우선 그들을 호출하여 앉히기 전에는 여하한 질문에도 대답치 아니하며 어떠한 판결도 무효로 인정함을 이에 성명한다》라고 하였더라. 이는 지극히 정당한 항의이며 또한 모든 나라 정직한 인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리해될 수 있는 목소리라 할 것이다.

주1: 9월 15일 워싱톤에 도착한 엔. 에쓰. 흐루쑈브 수상과 함께 무개차를 타고 시내 환영 군중 속을 지나갈 때 아이젠하워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미국 보도에 의하면 이는《좀 자작 환영하라》라는 암시였다고 한다.

주2: 미국 련방 경찰 당국의 오또바이 부대는 내내 엔. 에쓰. 흐루쑈브 수상의 승용차 주위를 세겹으로 호위하고 돌아 다녔는 데 이에 대하여 엔. 에쓰. 흐루쑈브 수상은 《이러한 호위는 일종의 연금으로 변하였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시였다.

가랭이가 찢어졌다

송 용남 그림

9월 24일에 발사된 미국의 《달 로케트》는 발사 즉시에 지상에서 산산히 폭파되고 말았다.

《상승》하는 자본주의

조 명식 그림

확실히 《앞섰다》

쏘련이 제2 우주 로케트, 제3 우주 로케트 하고 련달아 달 로케트를 발사하자 질겁한 미 부대통령 닉슨이 세계 제1 등의 쏘베트 과학 기술의 위신을 《저락》시켜 보려고 뉴욕 테레비존 방송국의 마이크 앞에 나서서 한다는 말이 《대체로 놀랄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며…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미국이 아직은 앞서고 있다》라고 뇌까렸다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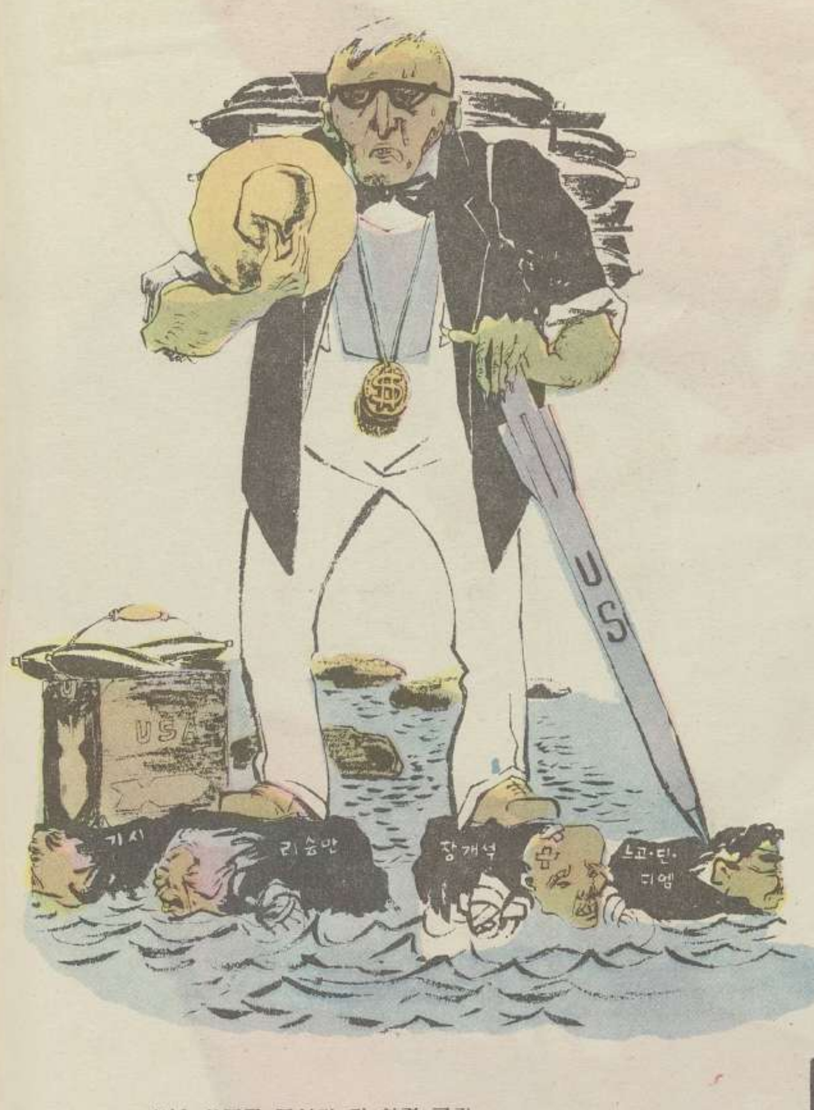
로케트 기술에 있어서 아직은 미국이 《앞섰다》고? 참 희한한 말씀이기도 하지…

하기야 앞서긴 《앞섰다》고 할 수 있지. 사회주의가 쏘아 올리는 붉은 로케트는 련달아 성공만 하고 있는데 그 무슨 《뱅가드》요, 《아틀라스》요 하는 미물들은 련달아 바

다에 쳐 박히고만 있으니 그 참담한 실패의 회수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국이 《앞섰다》고 할 수 있지. 그뿐인가, 약바른 미국 장사아치들은 벌써 전부터 제멋대로 달 나라를 미국의 마흔 아홉번째주로 《선포》하고 달나라의 토지를 매매하기 시작하였고, 펜타곤의 전쟁 미치광이들은 달나라를 저들의 군사기지로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 데, 지난 9월 18일에는 미 국회 상원 공화당 지도자 더크샌이란 자가 《달을 자유와 독립의 자치 지구로 선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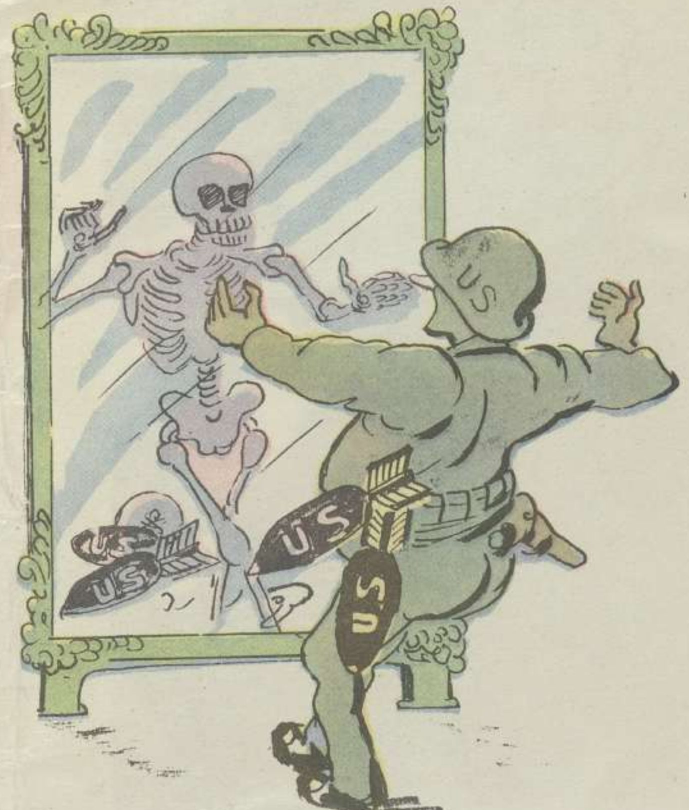
유일한 려권을 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쏘련의 달 로케트는 《아직 려권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법적인 것으로 규탄할 것》을 제의하였고, 미 합동 참모부 의장이라는 지극히 높은 장군 나으리는 《달 주위의 궤도 우에 미국 군대와 로케트탄을 배치하고 일어 날 수 있는 전쟁에 대처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엄숙히》 성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발광증도 이만하면

길막힌 폭탄 장사



함남 함주군 주서리 리 치렬 그림

제국주의 자신이 자멸을 확인할 때는 왔다



구성 광산 기계 공장 최 섭하 그림

미제 지배층들은 지난 7 월 부터 계속되는 강철부문 100 만 명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말미암아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압력

송 용남 그림

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확실히 《앞섰다》는 것을 그 누구도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게 아닌가.

그래도 미국이 《앞섰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그렇다면 케이프 캐나베랄 시험장으로 오시라, 여기에서는 10월 4일 (즉 쏘련의 제3 우주 로케트가 발사된 날) 미국의 달로케트 《플라리스》의 발사가 있었는 데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일주야 이상이나 걸려서 목적지 달 주위 궤도에 가 닿았지만 이 《플라리스》는 단 20초만에 종점에 도달하였으니 아니 그래도 미국이 《앞섰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지금도 그가 도달한 종점인 대서양의 밑바닥에는 이 20초란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워 있을 것이니 그를 찾아가 보시는 사람이면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미국이 앞섰다》고 한 닉슨의 말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영영 확신하게 될 것이다.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847
발행 1959. 10. 23
(값40전)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3 - AUG - 9
Copy 1960

송 용남 그림